특별기고

고독사 없는 전남, 도민과 더불어 따뜻한 전남

정광선
전남도 보건복지국장

도란도란 이야기꽃 피어나는 사랑방, 따뜻한 온기를 전해주는 화로, 노릇노릇 구워지는 고구마….

시골에서 자란 내게 이 같은 풍경은 지금도 마음 한켠을 데워주는 정겨운 기억으로 남아있다. 비록 지금은 추억 속으로 조금씩 묻혀 가고 있지만, 그 시절에는 이웃의 안부를 살피며 안부를 나누던 따뜻한 정이 있었다.

세월이 흐른 지금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우리 곁에는 홀로 외롭게 살아가는 분과 아무에게도 알리지 못한 채 쓸쓸히 혼자 생을 마감하는 이웃이 있어 안타까울 때가 많다. 며칠, 혹은 몇 주간 연락이 끊긴 뒤 뒤늦게 발견되는 안타까운 소식들. 그분들의 부재를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한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고독사는 특정 계층에 한정되지 않고 전 연령과 계층에서 폭넓게 발생하고 있는 추세다. 작년 한 해만 전국적으로 3924명, 전남에서도 112명의 도민이 홀로 생을 마감했다. 특히 50~60대 중장년층이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남성이 여성보다 5배나 높게 나타나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전남도는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도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찾아가는 복지'와 '촘촘한 인적 안전망'으로 대응하고 있다. 2026년까지 고독사를 100명 이하로 줄이기 위한 목표를 세우고,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세 가지 방향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선, '선제적 고독사 예방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전남도는 '찾아가는 복지'를 위해 2023년 고독사 예방 조례를 제정하며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어 매년 실태조사와 위험군 발굴을 꾸준히 이어가며 지금도 920명의 고독사 위험군을 세심하게 관리하고 있다.

안부 확인, 의료·건강관리, 생계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 지원이 그것이다. 특히 지원 대상도 고령층뿐 아니라 중장년 1인 가구, 우울·자살 고위험군, 저장 강박 세대 등 다양한 층으로 확대하였다.

올해는 도내 22개 시·군 전체가 참여하는 고독사 예방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했다. 총 45억원을 투입해 △위험군 조기 발굴 △정기적인 안부 확인 △사회적 관계 회복 프로그램 △도배·청소 등 주거환경 개선 △유가족·유품 지원까지 전 과정에 걸쳐 체계적인 예방체계를 마련했다.

내년에는 우리 도 특성을 반영한 '전남형 고독사 위험 판단기준'을 만들어 생애 주기별 위험 신호를 한층 더 세밀하게 살펴 나갈 계획이다.

또한, AI 등 스마트 기술을 적극 활용한다.

우리 도는 올해 행정안전부의 '읍면동 스마트 복지·안전 서비스' 공모에서 전국 최다인 9개 시군이 선정되며 기술 기반 돌봄의 기반을 마련했다. AI 돌봄기기, 자동 안부전화, IoT 센서 등을 활용해 사람이 돌보기 어려운 야간·심야 시간대까지 위험을 감지할 수 있도록 했다.

실제로 순천에서는 AI 안부전화가 60대 독거 어르신의 이상 반응을 감지해 즉시 알렸고, 담당자가 신속히 방문해 위급한 상황의 어르신을 구조한 일이 있었다. 작은 기술 하나가 한 사람의 생명을 지킨 순간이었다.

또한 보건복지부 '스마트 사회서비스' 공모에서 전국 유일하게 선정돼, 독거 어르신께 AI 반려로봇을 지원하고 있다. 이 반려견 로봇은 말벗뿐만 아니라 약 복용 알림, 생활 패턴 체크, 건강 상태 확인, 응급 시 119 자동 연계까지 수행하며 어르신들의 생활을 든든하게 지키고 있다.

해당 사업장인 목포시 상동 현장을 찾아갔을 때 AI 반려로봇에 머리핀을 꽂아주거나 작은 옷을 입혀주는 어르신의 모습을 보면서, 로봇이 단순한 기계를 넘어 새로운 정서적 동반자가 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내년에는 AI 반려견 보급사업을 더 확대해 더 많은 어르신들이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우울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가까운 안전망 '이웃연결단'을 활성화한다. 고독사 예방의 가장 강력한 힘은 이웃의 관심이다. 며칠째 불이 꺼진 집, 쌓인 우편물, 사라진 인기척 등 작은 변화들을 가장 먼저 알아차리는 것은 함께 생활하는 이웃이다.

우리 도는 올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마을이장·통장, 복지기동대 등 주민들이 참여하는 2만 4000명 규모의 '이웃연결단'을 구성했다. 이웃연결단은 고독사 위험군 발굴, 안부확인, 말벗 등 활동으로 생활밀착형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

내년에는 이웃연결단과 협조하여 전 도민을 대상으로 고독사 위험군 실태조사를 하고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겨울이 깊어질수록 서로가 서로를 더 살펴야 따뜻하고 안전하게 겨울을 날 수 있다. 이웃을 향한 작은 관심과 따뜻한 눈길이 어려운 이웃에게는 소중한 삶을 지키는 가장 큰 힘이 된다. 전남이 '고독사 없는 따뜻한 내일'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기를 진심으로 기대해 본다.

기고

혁신과 지속가능성의 도시, 꾸리찌바

김광훈
광주지속협
시민참여재생에너지전환위원장

브라질 꾸리찌바(Curitiba)시를 방문하고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도시 전체를 감싸고 있던 푸른 녹음과 활기찬 생명력은 여전히 깊은 인상으로 남아있다. 흔히 브라질 하면 떠올리는 복잡함이나 혼란스러움 대신, 꾸리찌바는 계획된 질서와 자연과의 조화 속에서 평화로운 안정을 보여줬다.

이 도시는 단순히 건물을 짓고 도로를 놓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닌, 사람과 환경을 중심에 두는 도시 설계가 무엇인지를 몸소 증명하는 곳이었다. 폐채석장이 아름다운 오페라하우스로 변모하고, 도시 곳곳에 넉넉하게 자리 잡은 공원들은 시민들의 휴식처이자, 도시의 허파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었다.

대자보 도시를 선언한 광주의 시민으로서, 단연 간선급행버스체계(BRT)는 최대 관심 사항이었다. 단순한 대중교통을 넘어, 도시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설계한 혁신 그 자체를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가졌다.

도시철도처럼 빠르고 효율적이지만 훨씬 저렴하게 운영되는 이 시스템은 시민들에게 편리함과 더불어, 버스 중심의 대중교통이 최고의 선택이라는 인식을 심어줬다.

시그니처인 원통형의 독특한 버스 승강장과 빠른 환승 시스템은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었다. 이제는 시즌2를 맞아 모양과 형태가 바뀌고 있다는 이야기에 서운함이 앞서지만, 꾸리찌바는 이 BRT를 통해 교통 체증과 대기 오염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으며, 세계 수많은 도시에 선진적 모범 사례를 만들었으니 고생이 많았다고 이야기해 주고 싶다. 도로를 메우는 자가용 대신,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빨간 버스 행렬은 꾸리찌바의 성숙한 도시 의식을 상징하는 듯했다.

꾸리찌바의 중심부에는 '꽃의 거리'와 같은 보행자 전용 거리가 활성화돼 있는데, 우연히 들린 숙소 앞 도로가 바로 강제적 병목현상으로 만든 거리였다. 현관문에서 버스 승강장까지는 편하고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빠름을 담보하고 있는 직접적 사례이다. 차가 사라진 그 공간은 곧 사람과 문화의 공간이 됐고, 주말이면 거리 예술가들의 공연과 활기찬 시장이 펼쳐져 도시 전체에 생기를 불어넣는다.

이곳에서 느낀 점은, 도시 계획이 단순히 물리적 구조를 만드는 것을 넘어 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일이라는 깨달음이었다. 꾸리찌바는 '가난한 도시에서도 혁신은 가능하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며 우리에게 '어떤 도시를 만들고 싶은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본다.

이 도시는 또한 도시농업을 우선시하고 있으며, 꿀벌에 관한 관심을 강조하고 있다. 먹기 위해 벌을 치는 것이 아닌, 농작물의 생산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함이다. 그들의 열망이 '꿀잼도시'라는 표현을 만들 정도니, 이 도시의 매력을 찾고 있는 우리의 기준에서는 '식물들이 얼마나 행복할까'라는 다소 엉뚱한 상상을 해 본다.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건강하고 행복하니,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행동도 꿀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시설물이나 프로그램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자연에서 찾는 지혜를 주문하고 싶다. 끊임없이 서로가 노력하는 과정과 긴 호흡으로 투자해 만들어지는 것에 두려움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

꾸리찌바는 오래전 미국 시사주간지인 타임지에 '지구에서 환경적으로 가장 올바르게 사는 도시'로 선정돼 유명세를 탔다. 시장을 세 번 역임하고 빠라나 주의 주지사까지 맡았던 자이메 레르네르씨는 이렇게 말했다. "더 나은 도시에 대한 꿈은 언제나 그곳 주민들의 머리 속에 있다. 우리시는 낙원이 아니다. 우리도 다른 시가 갖고 있는 문제들을 대부분 공통적으로 안고 있다. 다만 우리는 시민들을 존경하고 내일의 시민인 아이들과 그들이 살아갈 환경을 다루는 일에 더 깊은 연대감을 느끼고 실천하고 있을 뿐…." 일백년 정도는 투자하겠다는 결기가 읽히지 않는가? 어떤 분은 책을 통해 꾸리찌바를 '꿈의 도시, 행복 도시'라 표현했다.

통계적으로 단순 비교는 힘들다. 면적도 다르고 인구도 다르며, 기후 등 조건도 다르다. 그러하기에 책이 아닌 직접 보고 듣고 느끼고자 하는 목적이 연수의 가장 큰 의미가 아닐까 싶다. 반백년을 넘기며 꿀잼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꾸리찌바를 다시 한번 찾겠다는 약속을 숙제로 남기며 짧은 연수 소감을 갈무리하고자 한다.

취재수첩

'응급실 뺑뺑이' 막을 현실적 대책 마련을

이산하
정치부 차장

의과대학 정원 확대로 발발한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전공의, 의대생들의 복귀로 큰 산을 넘었지만, 여전히 의료계에는 난제가 산적해 있다.

의정 갈등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는 '응급실 뺑뺑이'가 대표적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병원 주변을 돌면서 환자를 수용할 병원을 찾고 있어서다.

응급실 뺑뺑이는 과거에도 존재해 왔지만, 의정 갈등 이후 더욱 심해진 양상이다. 병상 포화, 의료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응급 환자 거부가 이어지고 있으며 병원을 찾아 다른 지역까지 이동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이러한 응급실 뺑뺑이는 과거엔 존재하지 않았다. 병원에서 진료 거부를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응급실 과밀화를 막기 위해 의료법상 의료진 부재나 병상 포화 상태일 때 진료를 거부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문제는 병원의 거절 사유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이다. 때문에 환자를 이송 중인 구급대원은 각 병원에 전화를 돌리며 수용 가능 병원을 찾느라 속이 타고, 환자와 가족들은 불안감에 발만 동동 구르는 상황이 계속되는 중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각에서는 의사 수 확대를 제안하지만, 의료계 안팎에서는 제도적 장치가 우선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무엇보다 이송 거부 사유를 투명하게 관리·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급선무로 꼽는다. 병원의 병상 상황, 의료진 근무 여부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도로 위에서 길을 헤매는 구급차의 수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의견이다.

나아가 응급 의료 인프라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도 필요해 보인다.

응급실 운영에 병원이 난색을 표하는 이유는 '적자' 때문이다. 적자 운영이 해결만 된다면 병원 측도 응급실 운영에 옹색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정부는 응급실 뺑뺑이를 줄이기 위해 구급대원과 응실 사이의 핫라인을 개설하는 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그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정부가 길 위에서 죽어가는 국민이 없도록 응급실 뺑뺑이를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

사설

'광주형 실리콘밸리' 철저한 준비 성공해야

광주 군·민간공항이 무안으로 통합 이전한 후 기존 부지에는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이 집약된 '광주형 실리콘 밸리'가 조성된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최근 열린 '광주 군공항 이전 주민 설명회'에서 이 같은 개발 구상을 밝혔다. 18년간 표류해 온 광주 민·군 공항 통합 이전에 대한 최종 합의가 도출된 이후, 이해당사자인 광산구 주민을 대상으로 처음 연 공식 설명회 자리에서 광주시의 강력한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강 시장은 이날 직접 PPT 발표를 하며 이 곳을 '광주형 실리콘밸리'로 대전환하는 비전을 제시했다. 광주군공항 부지 8.2㎢(248만평)에 탄약고 부지까지 더하면 16.5㎢(500만평)으로 여의도 면적의 5.7배에 달하는 이 곳에 연구개발과 산업 활동이 활발히 이뤄지는 '미래형 실리콘밸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즉, 광주 미래산업의 혁신 거점이자 직장과 주거, 그리고 여가가 함께 있는 정주 여건, 녹지·문화의 공간이 어우러진 '미래형 도시공간'으로 계획하고 있다는 말이다.

실제 이곳은 광주 도심 한복판으로 영산강·황룡강과 같은 천혜의 자연환경, KTX·고속도로 접근성 등 모든 면에서 광주의 도시경쟁력을 크게 올릴 자산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5월 광주군공항 이전 부지에 대해 아파트가 아닌 기업 연구시설과 교육시설 등 광주시민이 먹고 살 수 있는 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이 부지 활용 방향으로 AI 산업, 헬스케어, 문화·예술, 숲 등 4대 콘셉트만 정해졌을 뿐,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AI 첨단도시인 중국 화웨이와 혁신적 정주 환경을 갖춘 일본 도쿄, 미국 맨해튼의 센트럴파크 사례를 모델로 해 미래형 도시를 본격화하겠다는 구상만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광주시는 군공항 이전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기존 부지 개발을 뒷받침하고 구체화하기 위해 '미래도시기획단'을 신설키로 했다. 이곳을 성장 거점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개발사업을 총괄·조정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는 기획단은 아래에 2개 팀과 1개 전담팀(TF)을 만들기로 했다.

현재 광주시의 구상단계에 머물러 있는 '광주형 실리콘밸리'가 앞으로 계획으로 바뀌고 구체화되길 바란다.

광주지하철 공사현장 '상권 살리기' 기대

광주시가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공사 현장 인근 상가 살리기 적극 나선다고 한다. 내년부터 119억원을 투입하는 '소상공인 및 상권회복 종합지원대책'을 마련해 본격 추진키로 한 것이다. 이는 지하철 공사 주변 23개 행정동에 위치한 소상공인 2만6000여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현장 맞춤형 정책으로 소비촉진, 자금지원 등 5개 분야에 걸쳐 종합 지원한다.

우선 내년 1월과 2월에는 64억8000만원을 투입, 시민 소비 부담은 줄이고, 인근 상권의 매출은 올리는 '상생카드 특별환급 행사'를 실시한다. 예컨대 대상지역 가맹점에서 상생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기존 10% 환급에 추가 10%를 더해 총 20% 환급 혜택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또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53억원을 투입, 500억원 보증 규모의 특례보증 지원사업도 시행키로 했다. 1700개사를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5000만원까지 보증을 지원하고, 1년간 3~4%의 이자도 함께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신규 인력 채용한 소상공인에게 1명당 월 50만원씩 최대 3개월간 지원하는 신규 채용 인건비 지원사업과 경영, 마케팅, 비즈니스모델 수립 등을 지원하는 종합 상담과 세무·노무·회계·법률 분야 전문상담을 동시에 제공하는 맞춤형 회복컨설팅도 해주기로 했다.

지난 2019년 착공 후 지금까지 복공판과 공사로 막혔던 이 구간의 도로가 개방된 22일에는 시청 구내식당 운영을 중단하고, 전체 공직자들이 공사 구간 인근 식당을 이용하게 했다.

또 자치구, 관계기관으로 참여를 확대해 이들 상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비 촉진 활동을 펼치는 한편 시민과 상인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광주시가 이처럼 이들 상가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은 공사 장기화로 인해 매출 감소, 안전·환경 피해가 극심한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일부 상가는 지하철 공사로 도로가 차단되고 보도 폭이 축소되면서 유동 인구가 감소, 막대한 영업 피해를 입었고 또 다른 상가들은 건물 균열, 지반 침하, 문 작동 불가 등 구조물 피해와 상수도관 파열로 인한 침수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영업상의 큰 피해를 입기도 했다.

광주시의 이번 종합대책이 그동안 지하철 공사로 폐업 위기에 놓인 이들 상가들에게 실질적인 대책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

광남일보 www.GwangNam.co.kr

회장 양진석 대표이사 발행인 차재진 사장 편집인 이승배 주필 김상훈 편집국장 최현수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4
우편번호 61234
대표전화 (062) 370-7000
팩스 (062) 385-5400

1995년 12월 12일 창간
2012년 5월 3일 등록번호 광주 가-52〈일간〉

정치부	370-7040	논설실	370-7200
경제부	370-7020	임원실	370-7000
산업부	370-7010	총무국	370-7093
사회부	370-7030	사업국	370-7090
문화체육부	370-7234	광고국	370-7070
편집부	370-7082	독자관리국	370-7080
사진부	370-7050	서울지사	(02)978-7090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기사제보·기고 보내실 곳 전화 062-370-7030 팩스 062-385-5400 이메일 gndn2018@naver.com